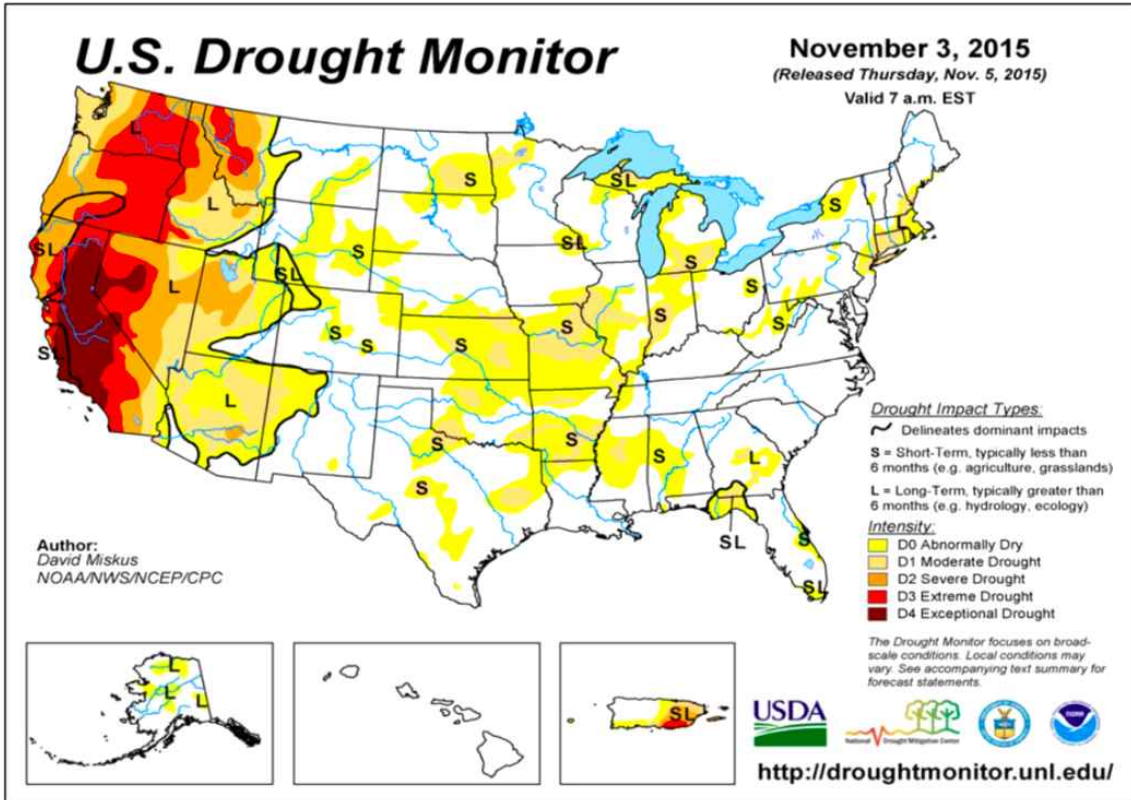


11월 10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45)

□ 미국 기후 현황(11/1~11/07)



선선한 공기와 함께 태평양으로부터 많은 양의 수증기가 서부 지역으로 들어와 비를 뿌렸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 일대와 북부, 캘리포니아 중부와 로키산맥 북부 등에서는 비가 내리거나 지역에 따라 눈이 내렸다.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한주간 평균기온이 평년 같은 기간에 비해 5°F 이상 높았다. 삼동부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농작업이 지연되기도 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남동부의 면화 재배지역에서는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중서부와 북동부 등에서는 맑은 날이 이어진 가운데 비가 조금 내렸다. 중서부의 옥수수, 대두 수확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중부와 동부 전역에서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중서부 등에서는 평년보다 10~15°F 이상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졌다.

□ 농업 현황 요약(11/02~11/08)

미시시피강 동쪽 지역의 지난 한주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6°F 이상 높았고, 서부에서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날이 이어졌다. 미 전역의 평균 강우량은 평년 수준이었지만, 남동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한주간 3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 옥수수

11월 8일 기준 전국 옥수수 수확률은 9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5%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보다도 5%p 앞서고 있다. 네브라스카에서는 지난 한주간 수확작업이 완료된 지역 면적이 12% 이상이었으며, 이 지역 수확작업은 87%가 완료된 상태이다.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11%p 앞선 것이다.

■ 겨울밀

11월 8일 기준 전국 파종률은 92%를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약간 늦은 수준이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2%p 뒤쳐진 상황이다. 지난 주말 기준 전국 발아율은 80%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p 뒤쳐진 상황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이다.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1%가 생육상황이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2%p 증가한 수치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9%p 낮은 수준이다. 캔사스의 경우, 겨울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한 재배자의 비율은 46%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p 낮은 수치이다.

■ 면화

11월 8일 기준 전국 수확률은 58%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p 낮은 상황이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7%p 뒤쳐진 수준이다.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에서는 비로 인해 수확작업이 지연되었다. 반면,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캔사스, 텍사스, 버지니아 등에서는 10%p 이상 수확작업이 진행되었다.

■ 대두

11월 8일 기준 전국 수확율은 95%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6%p 앞서고 직전 5개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2%p 앞선 수준이다.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확작업이 이번 주 중에 또는 주 후반에 종료될 예정이다.



□ 세계 기후 현황(11/01~11/07)

■ 유럽: 중부와 동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기온도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프랑스 중부와 폴란드, 발틱 연안 등 중부와 동부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에 비해 2~6°C 이상 기온이 높았다. 맑은 날씨 덕분에 여름작물의 수확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 3°C 정도 낮은 날이 이어졌지만, 겨울작물의 휴면이 시작되는 기온보다는 5°C 정도 높은 기온이다. 이탈리아에서도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져 대두 수확작업과 겨울밀 파종작업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20~6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프랑스 서부와 북부에서는 5~25mm, 영국에서는 15~35mm의 비가 내렸다.

■ 구소련(서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져 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남부에서는 맑은 날씨 덕분에 겨울밀 성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중부와 동부, 러시아 중부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60일 동안 비가 평년의 10%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렸고, 우크라이나 서부와 남부에서도 강우량이 평년의 10~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도 5°C 이하로 내려가 가을에 이은 냉해 피해가 예상된다. 러시아 남부 지역의 경우 겨울밀의 생육상황이 좋은 편이고, 기온도 평년보다 5°C 정도 높아 좋은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

■ 동아시아: 넓은 지역에 비가 내려 겨울작물에 도움이 되었다. 내몽고와 Yangtze 협곡 저지대 등에서는 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한주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약간 높았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 기온이 내려갔다. 중국 북부 평원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10°C 까지 올랐고, 주 후반에는 20°C 가까이 올랐다. 그밖의 지역에서는 맑은 날이 이어졌다.

■ 호주: 밀 재배지역 전역에 걸쳐 10~50mm의 비가 내렸다. 하지만 이번 비는 겨울 작물의 수확 전망을 밝게 해주기에는 너무 늦은 비였다. 반면, 북부 지역에서는 이번 비로 인해 막바지 생육이 지연되는 등 전반적으로 때가 맞지 않은 비였다.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도 25~50mm의 비가 내렸고, 지역에 따라서는 75mm 이상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남부의 밀 재배지에서는 지난 몇주간 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내린 비여서 메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었다. 밀 재배지역 전역에서는 평년보다 1~3°C 정도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까지 오르기도 했다.

■ 아르헨티나: La pampa, Buenos Aires, Cordoba, Santa Fe, Entre Rio 등 중부 지역에서는 지난 몇주간 이어진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가 이어져 여름작물의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들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20~30°C까지 올라갔다. 보다 북부에서는 지역에 따라 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Santa Fe 북동부와 Cordoba 동부 등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북부에서는 지난 한주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3°C 정도 높았고, 낮 최고기온도 20~30°C까지 올랐다. Buenos Aires 남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11월 5일 기준 해바라기의 파종률은 43%이며 옥수수의 파종률은 36%로 나타났다.

■ 브라질: 남부와 중부 주요 곡창지대에서는 비가 내려 대두 등 여름작물에 도움이 되었다. Mato Grosso 남부와 Sao Paulo 등에서는 5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그밖의 지역에서는 1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Rio Grande do Sul 남부 등에서는 10~50mm의 비가 내렸다. Rio Grande do Sul 주정부에 따르면 11월 5일 기준 밀 수확률은 50%이며, Minas Gerais 남부 등의 커피 수확률도 50%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Bahia, Piaui, Maranhao 등 북동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남부에서는 지난 한주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낮거나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Tocantins, Minas Gerais 등 북동부에서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다. 북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0°C까지 올랐고, 북부의 커피, 대두, 면화 재배지역에서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